

# 관개배수부터 스마트팜 기술 전수까지… 해외사업 강화해 K-농업 선도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해외사업 추진으로 해외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업기술과 발전 경험을 여러 나라에 전수하고 있다. 공사 해외사업 중 하나인 ‘해외기술 용역사업’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관개배수, 농촌개발 등의 용역을 수주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22개 농업 관개 지역에 대한 개보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주했으며,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마뎡겡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세부설계 컨설팅 용역도 수주했다. 최근에는 필리핀 국립관개청과 식량안보, 재해예방,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

공사는 스마트 농업 분야로도 기술

용역사업 영역을 확대해 지난해 ADB에서 ‘네팔 수자원관리 정보화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6월에는 네팔 수자원관개청장 및 공무원, ADB 관계자 등을 초청해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와 관개 정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국내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 농업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 체결을 협의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35개국에서 165건의 기술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17개국에 55개 ODA 사업을 추진해 현재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농식품부가 UN 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ODA 사업의 ‘위탁 시행기관’으로 지정



한국농어촌공사는 35개국 165건의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했다. 인도네시아 가리안댐 건설(왼쪽)과 말라위 수레벨리 관개개발 사업.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돼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연계한 융·복합 ODA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ODA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공사는 우수 농공기술 수출 확대를 위

해 지난 5월 농업 SOC·스마트팜·토양오염복원·행정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K-농공기술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했다.

공사는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해 아프리카 8개국에 다수확벼 종자 생산단지와 재배 인프라, 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 해외사업 다변화로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115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앞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주도하며 공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09도 상승했으며, 향후 20년 이내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구온난화는 홍수나 가뭄, 산불, 식량 부족 등 지구의 위협적인 재앙을 초래한다. 특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 캠페인 비전선포식’. [사진 aT]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사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탄소·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생산 ▶가공 폐기물 줄

이기 ▶푸드마일리지를 감축하는 지역 로컬푸드 소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엔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비전을 선포했다. 현재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 미국 대

형유통업체 ‘H-MART’,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 ‘리브라더스’ 등 30개국 530여 개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2주년인 올해 9월에 ‘저탄소 식생활 수산물 데이’를 선포하며 그린푸드에서 블루푸드로 확대, ESG 경영의 탄소저감에

한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호주 퀸즐랜드대 연구팀은 ‘전 세계 식단의 10%를 해조류로 대체하면 프랑스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10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농지 개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수산물은 탄소 배출량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12%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13일 수협중앙회 등 수산 관련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수산물 데이’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직원들에게 매주 수(水)요일 한 끼를 환경친화적이고 몸에 좋은 수(水)산물 식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